

■ 주요 뉴스: 연준 파월 의장, 잭슨홀 미팅 연설 예정. 명확한 9월 금리인하 신호는 가대난

- 미국 트럼프, 라-우 휴전 합의 실패, 우크라이나 압박을 통한 평화협정 추진
- Goldman Sachs, 증시의 골디락스 종료 경고, BofA도 매도 증가 가능성 제기
- 대만, 금년 GDP 전망 상향. AI 부문 양호한 수요 및 수출 증가 가능성 등을 반영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對中 관세 유예, 9월 금리인하 전망 등이 영향

주가 상승[+0.9%], 달러화 약세[-0.3%], 금리 상승[+3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주중반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기술주 강세 등이 배경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 증시 영향, 라-우 휴전 기대 등으로 1.2%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높은 수준의 9월 금리인하 가능성 지속 등이 원인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5%, 0.4%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예상치 상회한 7월 생산자물가 등으로 상승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영국 장기물 금리의 오름세 반영하며 10bp 상승

※ 원/달러 환율(주간) 0.14% 상승, 한국 CDS 하락

		8/15일	8/8일	전주말대비			8/15일	8/8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6,449.8	6,389.5	+0.94%	국채 금리 10y	미국	4.32%	4.28%	+3bp
	유럽	553.56	547.08	+1.18%		독일	2.79%	2.69%	+10bp
	중국	3,696.8	3,635.1	+1.70%		영국	4.70%	4.60%	+9bp
	일본	43,378	41,820	+3.73%	CDS 5y	한국	21bp	22bp	-1bp
	한국	3,225.7	3,210.0	+0.49%		중국	44bp	45bp	-1bp
환율	달러지수	97.85	98.18	-0.33%	위험 지표	EMBI+	334	344	-10bp
	유로화	1.1703	1.1641	+0.53%		VIX	15.09	15.15	-0.40%
	엔화	147.19	147.74	+0.37%		WTI유	62.80	63.88	-1.69%
	위안화	7.1845	7.1802	-0.06%	원자재	구리	449.3	447.2	+0.47%
	원화	1,389.5	1,387.5	-0.14%		금	3,336.2	3,397.8	-1.81%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연준 파월 의장, 잭슨홀 미팅 연설 예정. 명확한 9월 금리인하 신호는 기대난

- 이번 주 잭슨홀 미팅이 열릴 계획이며, 시장의 관심은 22일(金) 예정된 연준 파월 의장의 연설에 집중될 전망. 최근 7월 소비자물가 발표 이후 급등했던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7월 생산자물가 공개되며 다소 하락한 상황. 시장에서는 대체로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
- 다만, 파월 의장이 9월 금리인하 여부 관련 명확한 신호를 내놓지는 않을 전망. 향후 공개될 8월 소비자물가와 고용보고서를 통해 물가와 노동시장 상황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 아울러 최근 경제 여건이나 금융시장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도 아닌 것으로 판단
- 한편, CME의 FedWatch는 연내 2회 금리인하를 예상(9월과 10월, 각 0.25%p)하고 있으며, 특히 9월 금리인하 가능성(85%)은 높은 것으로 평가. 시장에서도 9월 금리인하를 기대하고 있으며, 최근 금융시장은 이미 이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추정(Bloomberg Economics)
- 연준 인사들은 9월 금리인하에 대해 의견이 상반된 모습. 최근 시카고 연은의 굴스비 총재는 9월 금리인하를 위해서는 이를 확신하도록 도울 수 있는 데이터가 좀 더 필요하다고 언급. 반면,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데일리 총재는 연내 2회의 금리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피력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트럼프, 라우 휴전 합의 실패. 우크라이나 압박을 통한 평화협정 추진 예상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라우 휴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발표. 다만, 푸틴 대통령의 '평화협정 체결' 제안을 수용했고, 18일 예정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압박에 나설 전망. 아울러 합의 실패에도 중국 등 러시아산 석유 수입 국가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는 보류할 전망
- 로이터 등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점령지 일부를 돌려주는 대신 전략적 요충지 돈바스의 나머지 지역을 넘겨받겠다고 제안. 한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나서는데, 이번 회담에는 유럽 정상들도 참여할 방침. 이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한 의도

■ Goldman Sachs, 증시의 골디락스 종료 경고, BofA도 매도 증가 가능성 제기

- Goldman Sachs는 대규모 AI 투자 지속, 금리인하 전망, 안정적 경제 성장 기대 등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으나 경제성장 둔화 가시화 혹은 금리인하 전망 악화 시 주가가 큰 폭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 BofA 마이클 하트넷 스트래티지스트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인사들이 완화적 신호를 발신할 경우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라는 격언에 따라 차익 매물이 급증할 수 있다고 지적

■ ECB 홀츠먼 위원,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 요구

- 홀츠먼 위원은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 익명으로 향후 금리 전망을 제시하는 연준의 점도표 등을 참고할 수 있다는 의견도 피력

■ 중국, 해외 투자에 대한 세금 납부 압박 강화. 재정 확보 등이 목적

- 세무 당국은 해외 투자를 통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투자자를 압박. 그 동안 시스템 미비, 인력 부족 등으로 탈세 추적에 취약했으나, 최근 경기 부진에 따른 재정 부족으로 정부 수입원 확대 필요성이 증가

■ 일본,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검토

- 닛케이 등에 따르면, 당국은 케냐 등 물류 요충지 국가, 나이지리아와 같은 대규모 인구 보유국을 중심으로 FTA 체결을 검토. 특히 FTA를 통해 아프리카 시장을 통합하고 인프라 정비 및 개발 등도 함께 실시할 것으로 예상. FTA 체결 시 자동차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

■ 대만, 금년 GDP 전망 상향. AI 부문 양호한 수요 및 수출 증가 가능성 등을 반영

- 당국은 대만의 금년 GDP가 4.4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이전(3.1%) 대비 상향된 결과. AI 관련 제품의 강한 수요가 이어지면서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 특히 고성능 반도체 및 AI 서버 수요 급증 등으로 금년 수출이 전년비 24% 증가할 것으로 추정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8/18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8월 NAHB 주택시장지수, 독일 중앙은행 월간 보고서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트럼프 관세, 예상보다 낮은 관세율로 물가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소지 - WSI

(Why Haven't Tariffs Boosted Inflation? This Theory Is Gaining Traction)

- 미국은 큰 폭의 관세 인상에도 인플레이션 급등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 현재 기준 실효관세율은 18.6%로 예상(21.9%)보다 낮지만, 물가를 자극하기에 충분(Yale U). 이에 일부에서는 기업이 관세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여 물가 상승이 억제되었다고 판단. 하지만, 최근 연구는 물가상승이 제한적인 이유를 설명(Barclays)
- 첫째, 미국 수입업체가 지불하는 관세의 가중 평균은 9%에 불과. 둘째, 의약품과 일부 반도체 등 수입품 가운데 절반 이상이 관세 면제 품목. 셋째, 중국 등 고관세 국가로부터의 수입 감소. 넷째, 기업 생산설비가 저관세 국가 혹은 본국으로 이전. 하지만 추가 관세 부과, 관세 부과 전 확보한 재고의 소진, 기업의 소비자 비용 전가 등을 감안하면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 가능성도 존재

■ 글로벌 투자자, 트럼프의 보이지 않는 손 등으로 미국 투자에 고심 - Financial Times

(Investors grapple with Trump's corporate America)

-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후 자본주의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따른 예측보다 트럼프의 정책이 더욱 결정적인 영향력 행사. 이에 기업은 '트럼프의 보이지 않는 손'에 더욱 주목하며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
- 바이든 대통령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특정 부문에 막대한 정부 자금을 지원했으나, 이는 트럼프의 개인적 의도와는 상이.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주가 급등, Tesla의 CEO 머스크와의 갈등 후 전기차 보조금 삭감 등은 이를 반증. 트럼프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와 혼란이 지속되면 미국 시장에 대한 신뢰성 저하 증폭될 우려

■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의 큰 폭 감소, 9월 금리인하 기대 강화 등에 기인 - 블룸버그

(US Corporate Bond Spreads Sink to 27-Year Low as 'FOMO' Sets In)

- 최근 미국 고용시장 둔화와 예상치에 대체로 부합하는 인플레이션 등으로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증가. 이에 관세정책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회사채 스프레드가 1998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
- 아울러 수익 확보 시기에 나 홀로 뒤처지지 않으려는 투자자 심리(FOMO)로 매수세 강화. 다만 일각에서는 회사채 수익률 프리미엄 감소가 경기침체 시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투자자의 안일함을 의미할 수 있다고 지적

■ 정부 통계의 신뢰성 확보, 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 자산 - 블룸버그

(Trusted data is a vital economic asset)

- 객관적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을 경우 금융시장과 정부 정책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근 미국 백악관이 노동통계국(BLS) 국장을 해임하고 보수 성향의 인사를 후임으로 지명한 것과 관련된 우려는 타당
- 해임의 발단은 기존 고용 통계의 대규모 하향 조정이었으나, 백악관이 제기한 조작 의혹은 근거가 미흡. 오히려 자원 부족, 오래된 통계 기법, 경제 변동성 확대 등이 원인으로 거론. 문제의 핵심은 이번 인사로 BLS 국장직이 당파적 임명 자리로 굳어지고, 수치 왜곡이 용인될 수도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다는 사실
- 이는 결국 정부의 통계에 대한 금융시장의 불신을 키워 위험과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우려. BLS의 중립성 회복은 단기 정치적 이익보다 훨씬 중요하며, 신뢰가 훼손될 경우 장기적으로 훨씬 큰 경제적 피해를 초래

■ 미국 증시의 고평가 심화, 리밸런싱과 장기 분산투자가 요구 - NYT

(The stock market is getting scary. What you should do.)

■ 평온한 미국 국채시장, 경제 충격에 강한 회복력 등이 주요 원인 - Financial Times

(The Treasury market's sudden remarkable tranquility)

■ 마러 알래스카 회담 결과, 러시아보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위협 - 블룸버그

(Trump and Putin's Alaska Theatrics Imperil Ukraine — and Europe)

■ 유럽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 가속화, 역내 성장 및 투자여건 조성을 저해 - WSJ

(America's Stock-Market Dominance Is an Emergency for Euro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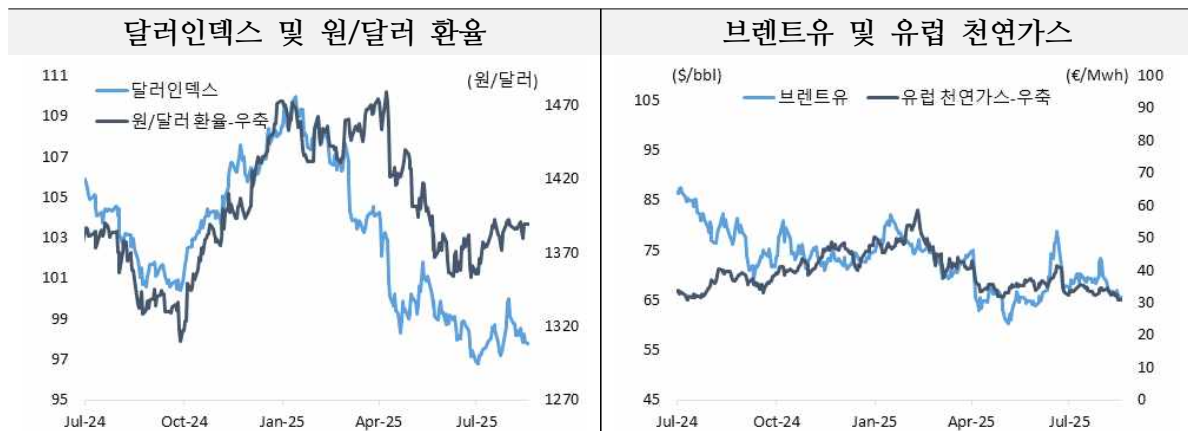
■ 중국 증시 부진의 장기화, 가계의 저축 선호 및 소비지출 감소로 연결 - 블룸버그

(China's \$11 Trillion Stock Market Is a Headache for Both Xi and Trum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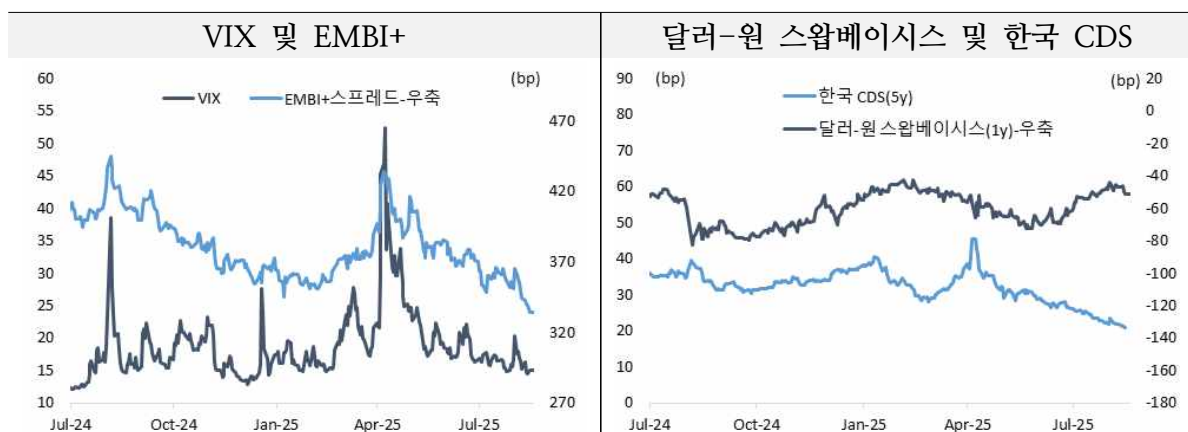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